지속가능 급식 운영, 기후위기 대응

도교육청, 올해 '저탄소 채식의 날' 운영학교 50곳에 예산 지원… 김제서 환경급식 실천 캠페인 '눈길'

지난 7일, 김제영양교과동아리 소속 영양교사들이 초·중·고 13개교(초9, 중1, 고3)가 참여하는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김제 검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 캠페인.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운영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저탄소 채식의 날' 운영학교 50곳에 운영비와 교육자료 구입비로 교당 100만~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저탄소 환경급식 중점학교 7개교와 AI기반 푸드스캐너 운영학교 7개교에도 각각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저탄소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저탄소 환경급식 프로그램과 수업자료를 개발해 적용하고, '저탄소 채식의 날'을 월 2회 이상 실천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춰 매주 '고기없는 월요일' 운영, '학교텃밭 운영', '텀블러 데이', '채소 자율배식대 운영', '제로웨이스트 실천',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 7일에는 김제영양교과동아리 소속 영양교사들이 초·중·고 13개교(초9, 중1, 고3)가 참여하는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 캠페인'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제지역에서 적용한 공동채식 식단은 '잡곡밥, 채개장, 생선강정, 카레크림우동, 오이무침, 과일'로, 학교 상황에 따라 식재료나 조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저탄소 환경급식 교육자료와 채식 레시피 자료집을 각급 학교에 보급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태환경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저탄소 채식식단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 현장에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은 물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저탄소 환경급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까바네 바이러스 동물모델 확립

전북대 나은지 박사과정생, 세계 바이러스학회 '최우수'

전북대학교 나은지 박사과정생이 라트비아에서 열린 세계 바이러스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나은지 박사과정생(수의학과 전염병학연구실·지도교수 엄재구)이 최근 라트비아에서 열린 세계 바이러스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두발표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 나은지 대학원생은 등에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아까바네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모델을 확립하고, 역유전학적 기술을 이용해 바이러스의 병원성 매커니즘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아까바네 바이러스는 등에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등에모기의 서식지가 확대됨에 따라 바이러스의 유행 기간과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바네 바이러스로 인한 매개성 질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국내 아까바네 바이러스 연구는 동물모델이 확립돼지 않아 성우(成牛·다 자란 소)의 비화농성 뇌염 유발 등 병원성을 일으키는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은지 박사과정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우스 모델을 활용해 국내의 성우에서 유·사산과 뇌염을 유발하는 아까바네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모델을 확립하고 관련 질병 유발 인자와 경로 등을 연구했다.

나은지 박사과정생은 "이번 연구는 성우에서 병원성을 유발하는 인자를 발견하고, 확립된 동물모델을 통해 향후 아까바네 바이러스의 백신개발과 치료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까바네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동물 모델과 백신개발 등의 치료제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 유체기계학회 학술대회 초청 강연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최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 한국유체기계학회 하계학술대회' 초청 강연을 벌였다.

이장호 총장은 해상풍력, 새만금산업단지, 지방대학 혁신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소고'를 중심으로, 새만금 메이커로 성장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의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차전지, 해양·수산환경공존 융합기술, 국방연구단지, 수소연료전지, 하이퍼튜브, 스마트팜 창업특구 등 새만금에 구축 중인 미래 핵심산업과 국립군산대학교가 구축 중인 새만금 글로컬 Co-캠퍼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국립군산대학교는 현재 새만금 미래산업 핵심 풀(pod)로서 18개 분야(508억 원)에서 새만금 관련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며, 새만금 산업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데이터 기반 분석을 실시하여, 새만금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장호 총장은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사구조 혁신 사례와 애자일 교육혁신체계인 '마이크로디그리 기반 기업 채용연계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교육수요자인 기업과 학생 간의 신속한 채용연계 매칭 전략을 제시했다.

이장호 총장은 "국립군산대학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컬 새만금 캠퍼스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 캠퍼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새만금 글로벌 캠퍼스를 기반으로 현장형 실무인재를, 군산대학교 미룡캠퍼스 기반으로 관리인력을, 새만금 글로컬 Co-캠퍼스 기반으로 초일류 연구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 새만금 모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 및 첨단 연구를 통해 지역 부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도교육청, 신규 고문변호사 위촉

최민종·김현민 이종기 변호사 등 3명 2025년 6월 30일까지

서거석 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최민종·김현민·이종기 변호사 등 3명에게 전라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신규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최민종·김현민·이종기 변호사 등 3명에게 전라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문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메타버스 내 사용자 문화적 취향 역할 분석

전북대 데이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현아 박사 정보과학기술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데이터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현아 박사(지도교수 유경한)은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정보과학기술 국제학술대회 APIC-IST 2023'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현아 박사는 지도교수인 유경한 교수와 함께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verse Usage Patterns and Cultural Tastes : A Study of Avatar Formation among Generation Z'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이론을 메타버스로 확대해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탐색해 사용자의 문화적 취향이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와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특히 메타버스 사용 연구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편, 박현아 박사가 소속된 전북대 데이터커뮤니케이션 연구소(소장 유경한)는 소속 대학원생들이 이번 학회에서만 모두 4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휴가철 공직기강 다 잡는다

14일까지 공직복무 점검… 금품 수수·음주운전 등 중점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무관용 원칙' 적용… 기강 확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4일까지 여름 휴가철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휴가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로 3개 반을 편성해 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 및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점검반을 꾸려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등 복무 위반을 비롯해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학교회계 등 공금관리 실태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청탁금지법·갑질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도 점검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감찰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자는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평화연구소, 2학기 통일강좌 지원 대학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평화연구소가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생을 위한 통일강좌 지원 사업에 2023학년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선정됐다.

그동안 원광대 평화연구소는 중층적이고 다원화된 한반도 통일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한반도 통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강생 스스로 비판적 의식과 평화적 가치를 재창출하도록 통일강좌를 진행해 왔다.

특히 '평화의 길, 통일의 꿈(메디치 2019)', '명사초청 통일대담(사람과 사회 2020)', '종교와 평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의 역할(열린서원 2021)' 단행본 출판과 평화아카데미 및 평화학학술대회 개최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평화 연구 및 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통일강좌 지원 사업은 원광대 교양교육원에서 '탈경계와 관계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옴니버스 형식의 명사초청 통일대담 교양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반도 분단의 성격을 탈경계로 재규정하고, 경계의 해체와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여러 철학과 실천에 주목하면서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 방안을 모색해 한반도의 평화적 지평과 상상력을 넓혀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알파세대의 메타 문해력'

전주교육문화회관, 31일부터 '여름 독서교실' 초등 3~6학년 학생 대상… 1·2차로 나눠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알파세대의 메타문해력'이라는 주제로 1·2차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1차에는 종이책을 통한 기초문해력 향상 수업으로 깊이 있는 독서와 다양한 방식의 토론 및 글쓰기 등 기초 문해력 증진에 집중하는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하고, 2차는 디지털 문해력을 위한 미디어 활용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재미있는 체험 및 만들기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내용으로는 △깊이 있는 책 읽기 △생각을 나누고 키우는 토론하기 △다양한 테마의 글쓰기 △알파미니로봇 연극 제작하기 △로보마스터로 레이싱 즐기기 △릴레이 AI 체육대회 등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전주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s://lib.jje.go.kr/jec)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과(063-270-1693)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규 관장은 "이번 독서교실은 알파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문해력부터 디지털 문해력까지 포괄한 미래교육으로 구성된 만큼, 아이들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